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복음-사도행전

세션 4, 복의 신학, 하나님의 계획, 기독론과 구원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4, Darrell Bock의 신학, 하나님의 계획, 기독론 및 구원입니다.

우리는 두 권으로 구성된 누가복음 주석의 첫 번째 책 서문에서 대럴 보크(Darrell Bock)의 루카 신학 요약을 살펴보고 루카 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도 했습니다.

성경신학적 치료는 종종 저자의 가르침을 분류합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누가의 신학적, 목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주요 줄기와 연관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고 새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 누가복음의 관심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논의입니다. 이 주제는 다른 공관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 더 강조됩니다.

Bock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따로 분리하여 결합한 예수의 프로필에 대해 매우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예수의 초상화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아주 잘 했어요. 마가와 마태는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 예수님의 고난의 필요성,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왕국을 설명하는 일련의 비유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는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연결과 관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독특한 누가복음의 여러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14~17, 31~35, 46~55, 68~79, 누가복음 2:9~14, 누가복음 2:30~32, 34~35, 누가복음 4:16~30, 누가복음 13:31~35, 누가복음 24:44~49. 우리는 그 위대한 구절을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까? 한 핵심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중복됩니다.

누가복음 7:18부터 35절. 게다가 누가는 고난받는 인자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그에게 독특한 것입니다. 중복되는 구절인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메시야에 관한 그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고난 받는 인자 구절에는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이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은 누가에게만 독특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8:31~33도 마찬가지다.

누가복음 22:22 ,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4:7은 누가에게만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부사항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7절, 28절의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인간의 악을 정죄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34~43, 사도행전 13:32~39, 사도행전 24:14, 15, 26, 12~23. 이 구절들은 계획의 주요 요소가 예수님의 생애, 즉 세상의 희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하고 궁핍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 새 시대의 도래, 사탄의 패배, 예수님께 오는 고난, 이스라엘에게 오는 분열.

누가복음 24:44-49. 아, 우리가 그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구약에 나오는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손과 발 등을 보라 하시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고기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성경에 호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그는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또한 강조되는 것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윤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제시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 계획의 주제는 특히 성경과 관련된 복음과 행위에 나타난 약속과 성취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구약에 대한 호소는 결국 기독론, 이스라엘의 거부, 이방인의 포용, 그리고 정의에 집중합니다. 후자의 두 주제는 복음서보다 사도행전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도행전 24장 14절은 특히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노력하는 동안 다양한 비난으로부터 제시되고 변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동안 이방인과 비유대인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주제는 누가복음의 수많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4, 3, 4-6, 4:25-27,

7:1-10, 10:25-37, 11:49-51, 13:7-9, 13, 23-30, 13: 31-35, 14:16-24, 17:12-19, 19:41-44.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이러한 인종적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늘의 구절은 계획의 모티브를 강화하고 약속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구절 중 하나인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4장 21절,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회당에 서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61장을 읽으시며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Bock의 요점은 이것이 오늘날의 사업이며, 그 언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직접 사역 가운데 바로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니 저희가 다 놀라며(눅 5:2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을 보았다 하더라. 13:32, 33. 그러므로 누가는 다른 표현과 다른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것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약속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32, 앞 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여기서 물러가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제 삼일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두 구절에 걸쳐 두 번 사용된 “오늘”이라는 표현은 반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9:5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 예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 것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4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시니 너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네 눈에 숨겨졌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의 반복, “오늘의 구절”은 계획의 모티브를 강화하고 예수님과 그분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말씀에서 약속의 즉각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약속의 옛 시대와 취임의 새 시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특히 1:76~79, 누가복음 3:4~6, 누가복음 7:24~35, 누가복음 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그 나라로 억지로 들어가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그 구절의 어려운 결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왕국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존은 구시대와 신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사실 그는 옛 사람에 속하지만 새 사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7장은 여기서 교훈적이다.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선구자이지만 더욱이 요한은 구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대표한다. 누가복음 7:27.

사실 그렇군요. 말라기 3장 1절이 아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후, 이사야서 40장에도 세례 요한의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28.

존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멋진 진술이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므로 요한은 거대한 인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옛 시대에 속해 있으며 새 왕국, 즉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요한보다 더 큼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이 구절은 우리가 방금 하나님 계획의 기본적인 누가복음 구조를 언급했을 때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속한 약속이나 기대의 시대와 요한이 실제로 속하지 않은 취임의 시대가 뒤따른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2단계 구조는 Hans Conzelmann이 1960년에 쓴 유명한 누가복음 주석에서 제안하고 1981년 Fitzmyer 가 수정된 형태로 옹호한 3단계보다 낮습니다.

Conzelmann의 제안은 특히 예수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 사이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예수 시대와 교회 시대 사이의 구분을 너무 강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복음 메시지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 출범하는 시대의 시기와 구조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직 실현될 미래의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21~27, 누가복음 21:5~38, 그런데 기본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대가 성취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두 번째 부분에는 세부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시간, 구약성경,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성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시간은 차례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완성(사도행전 3:14~26), 마지막 끝은 아직 이르지 않았거나, 신약 신학이 지금 부르는 것은 아직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의 주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임했습니다. 누가는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아직”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의 윤리적 메시지에 중요합니다.

사명 선언문. 하나님 계획의 다른 요소들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분은 자신의 임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시느니라, 누가복음 4:18, 19.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느니라, 누가복음 5:30~32.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든 대표자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들으러 오십니다, 누가복음 10:16~20.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누가복음 19: 10.

그의 경력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라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시니라.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일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행하신 일을 너희도 알느니라(행 10,38장).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음이라. 지리적 진행. 지리적인 발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운동의 성장을 드러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복음의 개요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내 친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야 했다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모델로 삼으시고 바울은 사도행전 19:21, 23:11에서 로마로의 여행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단어와 그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구절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어 단어, 낱. 필요하거나 반드시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구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하루를 사용한 101개 중 40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 눅 2:49. 그는 왕국을 전파해야 함, 눅 4:43.

그분은 사탄에게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3:16. 누가는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주 세력에 맞서 싸우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들은 끝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25.

누가복음 21:9. 예수는 범죄자 중의 하나로 여겨져야 함, 눅 22:37.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7.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눅 24:43-47). 이미 언급한 인자의 고난의 필요성도 이 강조점의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이 주제를 강조하는데, 때로는 낮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행 1:11, 3:21, 9:6, 16:13, 46, 14:22, 19:21, 23:11, 25:10, 27:24. 매 시간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려는 그분의 동정심과 노력을 표현합니다. 그는 일어나는 일,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활동적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넘어갈 것을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론과 구원은 바흐의 이해에 있어 두 번째 주요 구분이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독교론과 구원.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무엇을 가져오나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응답하라는 메시지와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 모든 메모는 계획에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계획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우위를 지닌 믿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메시아, 종, 선지자, 주님. 예수의 초상화는 누가의 주의 깊게 전개한 초상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의 기독론이 다양한 전통의 집합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다룬 사람은 1990년 책에서 크레이그 에반스(Craig Evans)입니다. 어떤 제목도 작품을 지배하지 않으며 세부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루크의 작품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바흐는 말한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를 주로 왕족이나 왕족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마리아에게 알린 내용과 사가랴가 한 말은 둘 다 다윗과의 연관성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실 것이고, 이 아기는 다윗의 계열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1~33. 누가복음 1:69.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선지자와 종과 같은 다른 기능도 누가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조합을 연상시키며, 이는 장엄하고 예언적인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누가복음 3:21~22.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며 음성이 나더라 하늘에서 왔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시편 2편을 부르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다스리도록 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입맞추거나 절해야 한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에 관해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 이다.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한다.

시므온의 말에는 종과 선지자의 이미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0~35. 누가복음 1:4. 누가복음 4:16~30.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지도자 선지자라는 개념이 지배적입니다. 지도자 선지자. 비록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평행하게 등장하지만(눅 4:25-27), 누가도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눅 4:18).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날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은 예수님의 세례를 회상합니다. 누가복음 3:21~22.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묵상하면서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세례를 회상합니다. 누가복음 3:21~22.

그런데도 대중은 예수를 예언자로 여깁니다. 누가복음 7:16, 9:7~9, 9:19.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20. 예수님은 인자의 고난이 불가피함을 소개하심으로써 이 고백에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22. 아들이라는 예수의 칭호조차도 사람의 아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9:21.

누가는 사람의 아들을 예수의 메시아적 역할과 독특하게 연관시킵니다. 누가복음 4:41.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소리 지르 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예언적 혼합은 변형의 음성과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Hear his Hear)는 누가복음 9장 35절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들 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상 7장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차지하게 될 솔로몬과 다윗의 다른 후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족입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이사야 42:1. 그의 말을 들어.

신명기 18:15. 그러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한 자라 하셨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시편 2편 7절의 성취니라. 이사야 42:1. 신명기 18:15.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시될 때, 그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도 규칙과 방향에 대한 메모가 기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의 메시아적 역할은 누가복음의 기독론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명확하고 신중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다른 기대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적은 다른 개념들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본 범주입니다. 예언적 모티브는 누가복음 11:47~51과 같은 본문에서 강합니다.

누가복음 13:31~35. 누가복음 24:19, 21.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의 시편 118편에 대한 호소는 그 표현을 장엄한 암시로 확장시킵니다.

누가복음 19:38. 오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15~18.

누가복음 7:22~23. 19:38. 누가복음 24장은 비록 연사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다고 잘못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24:21. 따라서 제왕의 구원자 그림은 결코 예언적인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흐는 누가가 메시아적, 기독교적 가르침의 다양한 가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일종의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분은 가장 근본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실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사역이 끝날 무렵, 누가의 묘사는 더욱 집중됩니다. 누가는 이제 인자의 권위를 언급하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41~44. 21:27, 22:69. 누가복음 20:41~44. 반복하자면: 누가복음 20:41~44. 누가복음 20:41~44.

누가복음 20:41~4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다윗의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냥 꿩이도록 내버려둔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후로 아무도 그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종말론적 담론을 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22시 69분.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리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참람한 죄로 고소하니 다니엘의 인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 다니엘 7:13, 14. 사람의 아들은 사실 복잡한 범주이다.

예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기 명칭. 그는 항상 이 말을 3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절대로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인자는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8편의 겸손하고 죽을 운명의 사람의 아들을 결합합니다.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도 그를 생각하였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동지가 있습니다.

여우에는 굴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당시 그는 허약하고 필사자이며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는 항상 3인칭으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0편과 결합되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읽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들로부터 신성모독의 부르짖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니엘의 신적인 인자와 시편의 겸손하고 필멸의 인자를 결합시켜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물론, 문제의 진실은 그분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 30~36장.

사도행전 10:36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36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5:24의 개념은 이제 예수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됩니다. 누가가 인용한 시편 110편은 이 구절의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세 단계로 누가는

주권 문제를 제기하고(눅 20:41~44), 예수님의 대답을 제시하고(눅 22:69), 주권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은 처음 두 본문을 공유하지만, 누가의 독특한 점은 사도행전 2장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22:69은 이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으로서 권위를 행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메시아의 종, 선지자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종교의식을 그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총체적이며 구약의 성도들이 야훼를 대신하여 행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즉, 누가는 자신의 기독론을 지상에서부터 전개합니다. 메시아의 종, 선지자는 그의 탄생 당시 하늘과의 연관성에 대한 암시가 존재했지만, 그의 사역과 시련의 맥락에서 점차적으로 주님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야기는 독자를 끌어들이습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예수의 초상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누가는 예수 사역의 사건을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주님에 대해 독특하게 말함으로써 예수의 권위에 대한 묘사를 강화합니다.

리오스(Kurios) 또는 주님(Lord) 을 사용한 구약성서 인용문은 누가복음의 초상화의 중심이 메시아보다 더 큰 지도자이자 선지자이신 예수의 그림임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다른 제목도 중요하지만 Luke는 이 기본 초상화와 함께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11, 누가복음 1:70-75, 누가복음 2:30-32, 사도행전 5:31,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으나 5:31, 하나님이 그를 그의 오른편에 높이사 지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여 죄 사함을 주소서. 이것은 유대 지도부의 판결이며, 하나님의 판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 :23-25도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눅 1:27, 32, 69, 2:4, 11, 18, 38, 39, 행 2:25-31, 15:16, 또는 그는 왕입니다, 누가복음 19:38).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눅 1:27).

그는 하나님의 증언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35, 누가복음 2:49, 3:22, 38, 4:3, 9, 41, 9:35, 10:21, 22 그러나 그는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아담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3:38, 누가복음 2:40, 누가복음 2:52, 아이 예수가 자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라. 그는 지혜와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육체적으로도 키가 커졌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회적으로도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그러므로 그는 이제부터 신인입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 성장했으며 요나, 솔로몬 및 다른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사람의 아들로써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섬기신다. 그는 종종 단순히 교사입니다. 누가 기록한 예수님의 초상화는 다양하지만 체계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나타난 왕국. 메시아는 하나님의 왕국,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4:18, 43, 7:22, 8:1, 9:6, 10:11. 그 왕국은 지금 존재하지만 미래에 올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희망을 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이 빠르고 잠재력이 있으며 꺼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왕국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실 때 왕국이 이미 임재해 있음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 연결은 왕국의 영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0:9. 귀신에 대한 72제자의 권세는 사탄의 타락으로 나타난다(눅 10:18, 19).

사실, 예수께서는 만일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거기 있는 자들에게 임하였느니라(눅 11:20, 23)고 말씀하십니다.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눅 17:21). 한 비유에서 왕은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납니다(인용). 그러므로 그가 돌아오기 전에 분명히 그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눅 19:14, 15). 재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왕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바흐는 오른손 대신에 옆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눅 22:69). 시편 110편에 대한 누가의 호소는 왕권의 존재를 묘사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30-36에서 구원의 유익을 분배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왕국의 현재 측면을 보완하는 것은 왕국의 미래적 성격이며, 이 "아직" 측면에는 왕국이 오기 전에 있을 심판이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2~37절을 구속의 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5~38, 주의 날에는 악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형상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1:25~27에는 이사야서 13:10, 에스겔 32:7, 요엘서 2:30, 31, 시편 46:2, 3, 시편 65:7, 이사야 24:19, 칠십인역, 학개서 2장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6, 21, 다니엘 7:13. 구약의 희망과 기대는 죽지 않았습니다(행 3:20-21). 예수께서는 약속의 나머지 부분, 즉 이 땅에서 모든 인류에게 눈에 띄게 나타날 약속과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유익을 가져오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 왕국 모티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4, Darrell Bock의 신학, 하나님의 계획, 기독론 및 구원입니다.